

이주민 구술 설화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주민 대상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박현숙**

차례

1. 머리말
2. 이주민 구술 설화 현지조사 개관
3. 이주민 구술 설화의 문화적 가치
 - 3.1. 문화의 다양성 이해와 타자의 '다름' 인정
 - 3.2.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이중문화 정체성의 확장
 - 3.3. 문화적 소통과 확장을 통한 상호문화 공감력 증진
 - 3.4. 이야기 구술문화적 속성과 가치의 발현
4. 이주민 구술 설화의 활용 방안
5. 맺음말

<논문개요>

이 글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채록한 이주민 구술 설화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주민 구술 설화가 지닌 문화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주민 구술 설화는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자의 다른 문화 정체성을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둘째, 이주민은 모국설화 구술을 통해 문화 적응 과정 속에서 억눌렀던 문화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중문화를 융합하는 정체성을 확장시켜 나간다.

셋째, 인류 보편성을 띤 이주민 구술 설화는 다른 문화 정체성을 지닌 구성원 간의

* 이 논문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6년 토대기초연구지원 사업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구술자료 DB 구축> 연구지원으로 수행됨 (과제 번호 AKS-2016-KFR-1230004).

** 건국대학교

상호문화의 이해와 공감력을 증진시킨다.

넷째, 이주민 설화 구연 현장은 다양한 설화 각편 생성, 협력구연을 통해 완결성 있고 서사성이 풍부한 설화를 생산해 내는 구술문화의 속성과 가치를 발현시킨다.

이상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이주민 구술 설화는 다양한 학문, 예술, 교육 분야에서 무한 활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문적 차원, 인적 차원, 문화적·교육적 차원의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문적 차원에서는 문학치료학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주민 구술 설화는 다문화사회에 변화된 한국사회 구성원 변화에 맞는 문학치료학의 작품서사 확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인적 차원에서는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적·교육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원천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주민 구술 설화의 가치 증대와 활용성 확장을 위해 향후 이주민 구술 설화의 질적·양적 자료 확보와 좋은 생애담 자료를 보강해 나가고자 한다.

핵심어 : 이주민, 다문화, 이주민 구술 설화, 문화 정체성, 문화 창조자, 문화 공감력, 태극 설화, 캄보디아 설화, 일본 설화

1. 머리말

대한민국은 다문화 인구 200만 시대에 접어든 다문화사회이다. 다문화사회란 다른 신념과 습관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문화공동체가 잘 조직화 되어 이들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그에 따라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초창기 동화주의(assimilation)의¹⁾ 한계를 보완한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

1) 동화주의(assimilation)는 소수 민족이나 소수 문화집단이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고 주류 문화, 즉 백인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는데, 역사적으로 미국의 정책들은 교육시스템을 통해 소수문화집단을 동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가 비난을 받아왔다. 권미경, 『여성결혼이민과 한국사회 다문화주의와 평생교육』, 한국학술정보, 2009, 43쪽.

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적 창의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문화이론이다.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의 격차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규범이며 향후 한국사회가 실현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문화가 상호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사고의 틀이다.²⁾

정부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여성가족부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많은 다문화 관련 사회복지, 교육, 행정, 문화 정책들을 추진하여 이주민의 문화 적응을 돕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다른 문화의 차이 인정과 평등, 그리고 상호 존중이다. 그런데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내의 실생활은 어떠한가?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들과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지만, 가족들은 외국에서 온 이주 가족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농촌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며느리들은 한국의 세시풍습에 대하여 한국인 못지않게 잘 알고 있고,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여느 한국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집안 문화에 맞게 잘 준비한다. 김장철이 돌아오면 김치 100포기 이상도 거뜬히 잘 해내며 한국인 주부에게 김치 맛있게 담그는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한다. 자녀를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이 산후조리 때 먹어야 하는 미역국은 식생활 문화가 다른 그들에게 출산 후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산 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까지 끼니마다 미역국을 먹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한다. 그러함에도 가족들 생일상에는 반드시 미역국을 끓여 올린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은 외국인 가족

2) 김성길, 「다문화 개념 재정립과 소통의 배움 원리」, 『Andragogy Today』 16-1, 한국성인 교육학회, 2013, 8쪽.

의 언어에 대한 무관심과 마찬가지로 음식문화에도 큰 관심이 없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고향의 음식이 그리울 때면 가족이 아닌 주변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모국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곤 한다.³⁾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정책과 사업은 이주민의 자국문화와 한국문화, 즉 이중문화의 상호소통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한국문화 전달의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은 평등이 아닌 온정적 시혜적 측면이 강하다. 이주민이 자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지속적이기보다는 일회적이다.⁴⁾

이주민의 통합유형(Integration)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연구와 이주민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의 이주민은 동화유형(Assimilation)의 문화적응이 이루어지고 있다.⁵⁾ 이주민 문화정책의 계획과 실제의 괴리는 이주민을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문화가정에서 새로운 문화 환경의 적응은 이주민과 정주민 가릴 것 없이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주민만 새로운 문화 환경의 적응 대상이 되고 있다. 단일민

3) 이옥희가 「이주민이 경험하는 민속문화 소통의 현주소」, (『남도민속연구』 23-10, 남도민속학회, 2011, 283-287쪽.)에서 살핀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에 거주하는 세 명의 결혼이주여성 구술면담을 통해 언어, 세시풍속, 구비전승, 음식문화, 신앙에 관한 민속 문화 소통 양상을 살핀 사례를 일부 참고하였고, 필자가 이주민 구술 설화 조사과정에 만난 제보자들의 사례를 일부 제시하였다.

4) 이옥희가 (위의 논문, 291쪽)에서 전라남도 순천시 복지, 교육, 문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의 일부이다.

5) Berry(2005)는 문화적응을 모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 모국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유형(Integration), 모국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화유형(Assimilation), 모국의 문화를 고수하는 분리유형(Segmentation), 모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에서 갈등하고 어느 행동도 하지 않는 주변화유형(Marginalization)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오정미는 「설화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9쪽.)에서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에서 결여된 이주자의 내적 요인을 보완하여 여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적응에서 소통의 성공 유형으로 동화유형, 변형유형, 통합유형으로 분류하고, 소통의 실패 유형으로 종속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죽국가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다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정주민에게도 새로운 문화 환경이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기존 구성원의 환경과 대응은 변화하지 않고, 새로운 구성원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민이 정주민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이주민의 빠른 한국 생활의 적응과 정착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결과일 뿐이다.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서 선녀가 왜 그토록 날개옷을 찾으려고 했는지, 결국 선녀가 나무꾼을 떠난 결말을 통해 한쪽 문화의 일방적 수용과 흡수 통합적 다문화 정책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통합은 사회 구성원 모두 이중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상호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주체가 함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갈 때 가능하다.⁶⁾

최근 포르세(L. Porcher)와 압달라-프렛세이(M. Abdallah-Pretceille)는 문학을 ‘상호문화교육의 상징적인 영역’⁷⁾으로 규정한 바 있다. 문학은 다른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정체성과 인간사회 전체에의 소속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영원한 갈등을 재구성하며, 사람들이 국가적 경계를 넘어 국제적 관점을 가지게 하고 자기 영역을 초월하게 하는 문학의 보편성과 문학이 특정한 곳에서 발생하여 존재하는 문학의 특수성이 상호문화교육의 상징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상호문화교육의 상징적 영역이 되는 ‘문학’의 본령은 오랜 세월 구비전승되어 온 설화문학이다. 최원오는 설화가 초국가적 다문화주의 원리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설화가 지닌 보편성은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6) 다문화사회가 지향해 나아가 할 방향은 다문화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이다. 상호문화는 문화적 다양성과 결부해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인 반면에, 다문화는 집단의 복수성은 인정하지만 공동의 단일성의 파괴는 피하려 하면서 교육적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마달레나 드 카를로, 『개념과 활용 상호문화 이해하기』, 장한업 옮김, 한울, 2011, 49쪽).

7) M. Abdallah-Pretceille, L. Porcher, *Education et communication interculturelle*, Paris: PUF, 1996.

것을 의미하기에 초국가성과 연결되며, 전승지역에 따라 특수성을 갖게 되는 것은 유사한 것이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면서도 차별성을 갖는 것과 연결되며 이러한 차별성은 대개 해당 전승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

필자는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수동적인 문화 수용자가 아닌 문화 생산자이자 이중문화 중재자로서 다문화사회에서 새로운 문화를 역동적으로 형성해 나갈 주체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주민의 설화 구술 과정을 문화 생산 과정으로 보고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이글에서는 이주민이 주도하는 설화 구연 현장의 조사 개관을 소개한 뒤, 현지조사를 통해 채록한 이주민 구술 설화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찾고자 한다.⁹⁾ 나아가 이주민 구술 설화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주민 구술 설화 현지조사 개관

본 연구 대상의 자료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1개월간 전국에 거주하는 다국적 이주민을 대상으로 채록하였다. 설화 제보자는 한국사회 정착민인 결혼이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삼되, 경계적인 정착민으로서의 이주노동자와 잠재적 정착민으로서의 유학생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¹⁰⁾

8)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140쪽.

9) 다문화시대에 설화를 포함한 구비문학이 지닌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명현의 「다문화시대 신화의 가치와 의미」(『동아시아고대학』 25,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과 「다문화시대 판소리의 재인식과 문화적 가치 탐색」(『다문화콘텐츠연구』 12,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2)가 있다. 이 논의는 다문화시대에 구비문학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논하는데 있어 한국의 설화와 판소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채록한 이주민의 구술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본고의 논의와 큰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구술자료 DB 구축> 과제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채록한 이주민 구술 설화를 대상으로 전개된 논의는 신동훈의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과 오정미의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구비문학연구』 47, 한국구비문학회, 2017)이 있다.

이주민 구술 설화 자료를 채록한 현지조사 현황을 제보자, 이야기관, 조사 자료 항목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1) 현지조사 참여 제보자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주민 설화 구연 현장에 참여한 제보자는 136명이다. 제보자 136명의 국적은 22개국이다. 국적별로 확보된 제보자 인원을 보면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은데 한족 12명, 조선족 15명이다. 그 다음이 베트남 국적의 제보자가 많다. 베트남 국적의 제보자가 22명, 일본 12명, 필리핀·몽골 제보자가 각 10명씩, 캄보디아 9명, 카자흐스탄 8명, 우즈베키스탄·네팔 제보자가 각 5명씩,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태국 제보자가 각 4명씩, 키르기스스탄 3명, 인도·인도네시아·아제르바이잔·파라과 제보자가 각 2명씩,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대만·미얀마·미국 제보자가 각 1명씩이다.

이주민 설화 구연 현장에 참여한 제보자의 이주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참여 이주민 136명 가운데 결혼이주여성 92명(68%)이 84명, 이주노동자 13명(10%), 유학생 29명(21%), 영주 귀국자나 한국 방문 부모 2명(1%)이다.

이주민 설화 구연 현장에 참여한 제보자는 이주 경력이 3년 이내부터 25년 이상까지 다양하며 제보자의 한국 정착 경력의 편차가 크다. 5년에서 10년 이내의 제보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 경력이 10년 이상 된 제보자가 전체 비율의 40%가 넘는다.

그런데 제보자의 이주 경력과 이주민의 구연 능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3년 이내의 이주 경력의 제보자라 하더라도 모국에서 대학

10) 2016년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인 건국대학교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구술자료 DB 구축> 과제 수행을 위해 14명의 연구원이 현지조사에 참여하였다.

시절 한국어 전공을 한 제보자나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난 제보자는 10년 이상의 이주 경력 제보자보다 한국어 구사 능력과 어휘 선택 능력이 더 뛰어나다. 그리고 이주 경력이 10년이 넘은 제보자라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제공하는 조사 자료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제보자도 있다. 그래서 이주 경력으로 제보자의 구연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이주 경력이 오래 될수록 제보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래서 자국의 설화를 구연할 때, 조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적절한 한국 사례를 빗대어 설명한다. 그리고 이주생활담이나 생애담의 에피소드가 풍부하고 깊이가 있다.

2) 조사지역과 구연현장

제보자 136명의 설화 구술 이야기관은 전국적으로 총128회 열렸다. 이야기관의 성격과 구성은 이야기관마다 조성된 제보자의 국적, 제보자 수, 구연 시간 등 성격에 따라 다르다. 유능한 제보자 단독으로 240분 이상 설화 구연이 이루어진 판도 있고, 제보자 여러 명이 섭외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국적 제보자들로 구성된 다국적 이야기관과 동일 국적 제보자들로 구성된 동일 국적 이야기관이 조성되어 여러 제보자들의 경쟁구연이나 협력구연이 이루어졌다.

21개월 간의 현지조사는 전국 단위 조사 목적에 맞게 제보자 거주지역의 지역적 균형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역별 확보된 제보자와 조사지역을 보면, 서울지역 33명(34회 조사), 경기지역 25명(20회 조사), 인천지역 8명(9회 조사), 강원지역 20명(25회 조사), 충청지역 13명(12회 조사), 전라지역 17명(14회 조사), 경상지역 22명(14회 조사)이다. 136명의 제보자가 이주민 설화 구술 이야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설화 구연을 통하여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문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이주민 구술 설화 현지조사 채록자료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현지조사에서 채록된 구술 설화는 총 1379편이다. 대략적인 자료의 유형 통계를 보면 신화 109편, 전설(인물담 포함) 288편, 민담 550편, 한국설화 9편으로 구술 설화는 대략 947편(69%)이다. 생애담(신이체험담·이주생활담 포함)은 114편(8%), 기타(민속·민간요법·민요 포함) 198편(14%), 속담(관용어·격언·명언·금기어·사자성어 포함) 110편(8%)이다.

현지조사 자료 유형 가운데 설화 자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민담>전설>신화 순으로 자료량이 채록되었다. 신화와 전설은 제보자의 모국의 세계관과 가치관, 근원의 특수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특히 전설은 동일 국적의 제보자가 다수 구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개인마다 살아온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국가의 지역적 특수성이 살아있는 귀한 자료는 다양한 시각에서 제보자의 모국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가장 많은 채록 비율을 차지한 민담은 다국적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인류 보편적 사고와 가치관을 발견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다국적 제보자들의 생애담은 이주민이 놓여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정주민과 동일하게 겪게 되는 여성의 삶 속에서 동질감을 발견할 수 있기에 이주민의 생애담은 정주민에게 공감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이주민 구술 설화의 문화적 가치

설화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정주민과 이주민, 이주민과 이주민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 글에서는 2장에서 밝힌 전체 현지조사 자료 가운데 필자가 직접 참여한 현지조사 자료의 사례를 통해 이주민 구술 설화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살피고자 한다.¹¹⁾

3.1. 문화의 다양성 이해와 타자의 ‘다름’ 인정

이주민은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문화적 환경과는 다른 문화권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한국의 생활양식을 습득해 나간다. 이주민은 한국 정착과정에서 언어소통, 사회적 편견,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육아 및 자녀 교육에서 겪는 곤란, 부부 갈등까지 더해져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된다.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자국의 문화적인 가치와 생활 방식을 포기한 채 한국의 문화만을 수용해야 하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문화 적응에 따른 어려움은 이주 경력이 짧을수록 심하게 느낄 것 같지만 이주 경력이 오래된 이주민도 예외는 아니다. 자국의 문화와 온전히 단절된 채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국의 문화를 말할 기회가 흔치 않은 이주민들에게 설화 구연 현장은 이주민 제보자가 오로지 자기 존재의 근원에만 집중하여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공간이다. 이주민이 구연하는 전통 설화는 각 나라와 민족의 풍토와 습속, 정서와 세계관 등을 응축하여 지니거니와, 전통 설화를 구연하는 과정은 문학으로 육화된 문화요소를 자연스럽게 펼쳐내는 과정으로서 의의를 지닌다.¹¹⁾ 따라서 각국의 전통 설화는 다문화 시대에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다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주민 설화 제보자는 자신이 주도하는 이야기판에서 조사자와 청중에

11) 필자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한 이주민 구술 설화 현지조사 횟수는 44회이며, 강원, 전라, 서울, 경기, 인천, 경상지역 조사에 참여하였다. 현지조사에서 채록한 구술 담화 자료는 431편이고, 이주민 구술 설화를 제공한 제보자는 48명(결혼이주여성 38명, 유학생 6명, 이주노동자 2명, 기타 1명)이고,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대만, 네팔, 미얀마이다.

12) 신동훈, 앞의 논문, 295쪽.

게 자국의 문화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려려고 한다. 그래서 민족적 특성이 잘 반영된 설화를 구연 종목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이 들려주는 설화는 민족적 풍습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정주민이나 타 이주민은 국가별 다양한 문화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 가운데 민족적 특수성이 반영된 몇 가지 설화 사례를 통해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자.

이주민 제보자는 명절, 명절 음식, 전래놀이와 관련된 설화를 구연하면서 자국의 특수한 문화를 알린다. 명절 음식이나 풍습의 기원에 대한 대표적인 설화가 베트남의 <반자이와 반쥬>와 <쩌우까우> 이야기다.

<반자이와 반쥬> 설화는 베트남의 설 명절에 ‘반자이와 반쥬’를 먹게 된 내력을 담고 있다. 왕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선택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 구해오기’ 과제를 제시한다. 왕은 왕자들이 구해온 세상의 온갖 귀한 음식을 뒤로 하고 막내 왕자가 쌀로 빚은 하늘 모양을 본 뜬 둥근 ‘반자이’와 땅의 모양을 본 뜬 네모난 ‘반쥬’를 선택하였다. 왕은 막내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베트남에서는 이때부터 설 명절에 ‘반자이와 반쥬’를 먹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설화에서 막내 왕자가 하늘과 땅의 향기를 품은 떡을 빚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은 인물로 백성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는 현군(賢君)으로서의 자격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한 민족을 대표하는 음식인 떡의 유래가 왕의 자격을 시험하는 서사와 연결되는 것은 왕으로 상징되는 세계에 대한 민중의 희망과 염원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의 <대나무 속 엄지 여인> 설화에서도 왕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리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이 설화에서 대나무밥을 올린 막내 왕자의 왕위 계승 의미는 <반자이와 반쥬> 설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의 지리적 여건상 쌀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도 잘 반영하고 있다.

베트남의 <쩌우까우> 설화는 아내와 동생 사이를 형이 오해하자 집을

나간 동생이 죽어 바위가 되고, 동생을 찾으러 나선 형이 바위에서 죽어 찌우나무가 되고, 남편을 찾아 나선 아내가 죽어서 찌우나무를 감는 넝쿨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찌우까우나무 열매가 유래된 전설과 베트남의 전통 혼례풍습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설화에서 부부의 깊은 애정과 형제의 우애는 작은 오해로 인해 엇갈려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고 만다. 그러나 세 사람은 죽음 이후 떨어질 수 없는 나무와 넝쿨로 새 생명을 얻어 손님을 대접하거나 약혼·결혼식에 사용하는 귀한 열매로 결실을 맺는다. 불신으로 인해 빚어진 비극이 가족의 희생을 통해 무너진 부부애와 형제애의 신의를 되찾는다는 내용이다. 이 설화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에서 신의와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게 하고, 애정과 신의를 되찾은 결과물의 열매를 결혼식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 남녀가 입에 넣어 씹음으로써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강렬한 붉은 빛의 열매는 신의를 되찾기까지의 부부와 형제의 고난과 시련의 상징적 결과물이자 남녀의 성적 결합의 상징이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의 <찌우까우> 설화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결혼식에서 찌우까우나무 열매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전통 혼례 문화의 당위성과 믿음을 부여하고 서사라 할 수 있다.

한 민족의 전통음악은 그 민족의 정신세계를 반영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의 유래에 얽힌 설화도 각국의 제보자들이 선호하는 구연 종목이다. 몽골의 <마두금> 설화와 카자흐스탄의 <돔브라> 설화가 대표적이다. 두 악기는 두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로 악기 소리는 초원을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닮았다고 한다.

몽골의 <마두금> 설화는 한 청년이 자신이 아끼던 말이 역올하게 죽음을 당하자 죽은 말을 기리기 위하여 나무를 깎아서 말의 형상을 한 마두금 악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마두금 악기의 두 줄은 죽은 말의 꼬리를 잘라서 만들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의 <돔브라 줄이 두 개인 이유> 설화는 한 신하가 사냥을

나갔다가 죽은 왕자의 사연을 돔브라의 연주 소리로 왕에게 알렸고, 이후 왕이 돔브라 구멍에 씻물을 부어 여러 줄이 끊어지고 두 줄만 남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몽골의 <마두금> 설화는 말머리 장식을 한 악기의 생김새에 서사의 초점이 맞춰 있다. 드넓은 초원을 한 몸이 되어 내달렸던 말에 대한 몽골인의 깊은 애정이 잘 드러나 있으며, 늘 곁에서 몽골인과 회노애락을 함께 해 온 민족의 전통악기에 대한 민족애가 깊이 배어 있다. 그에 비해 카자흐스탄의 <돔브라 줄이 두 개인 이유> 설화는 주로 민족의 영웅담이나 구전 서사시를 낭송할 때 연주되던 악기의 기능에 서사의 초점이 맞춰 있다. ‘그(연주) 소리 날 때 말이 달그닥 달그닥 소리 나고, 말이 뛰어가느 소리랑 자연, 자연의 풍요로움과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되다가는 그때는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를 (왕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연주를 통해서’¹³⁾ 라는 우쿠자노바디나 제보자의 구연 내용처럼 왕은 말(言)의 언어가 아닌 음악의 언어로 모든 사실을 알아차린다. 영적이고 정서적 교감을 통해 각 곡마다 내포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민족 음악의 향유방식까지 설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몽골의 전통악기 <마두금> 설화를 구연한 수흐바타르알탄바가나 제보자는 몽골의 전통 모자가 새의 모양이 된 이유에 대한 설화를 구연하면서 타 민족 사람들에게 몽골의 전통 모자를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몽골의 독특한 의복문화까지 알려준다. 이 설화는 까치가 몽골인을 죽이려는 식인까마귀의 계락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사람들이 새 모양의 모자를 쓰고 식인까마귀를 쫓아내고 살아남았다는 내용이다. 제보자는 설화 구연을 마친 뒤 까마귀를 싫어하고 까치를 좋아하는 몽골인의 민족적 인식을 반영한 설명을 덧붙인다. 이로써 정주민은 몽골인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까마귀를 해

13) 우쿠자노바디나(카자흐스탄, 여, 1981년생, 결혼이주 13년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2016년 11월 12일, 박현숙, 김현희, 김민수 조사.

로운 존재, 까치는 이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각국의 제보자들은 자국의 고유한 정신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설화를 구연 종목으로 많이 채택한다. 태국은 불교 사상이 반영된 설화가 많다. 설화에서 주인공이 불탑을 지어 지은 죄를 속죄하는 설화가 많은데, 그 이유는 태국인은 죄가 불탑 안에 들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제보자들은 일본의 정신문화가 반영된 설화 구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인들의 삶 속에 깊이 녹아있는 일본의 다양한 민간신들의 이야기¹⁴⁾, 텐구, 야반바, 유키온나 등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다양한 일본의 요괴 이야기 등은 일본 국적의 제보자면 누구나 한 마디씩 구연할 정도이다. 설화 속 요괴는 인간과 친밀한 존재이며 인간에게 간혹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 국적의 제보자들이 구술하는 설화에는 일본의 사후세계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만물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깊이 담겨있다.

설화에 반영된 각국의 문화 정체성은 각국의 독특한 고유 서사에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서사구조를 지닌 광포 설화에서도 작은 변이 요소를 통해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아시아 문화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열두 띠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로 구성이 되지만 각국의 지역적, 종교적 환경에 따라 다른 동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용 대신 네팔에서는 독수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물고기, 카자흐스탄에서는 달팽이가 등장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닭 대신 공작, 네팔에서는 날개 달린 짐승이 등장하기도 한다. 베트남에서는 소 대신 물소, 토끼 대신 고양이, 양 대신 염소가 등장한다.¹⁵⁾

14) <저승강을 지키는 할머니(산즈노가와)>, 마을에 놓여 있는 돌부처(지장보살), 빈곤신(민보카미), 복의 신(후쿠노카미), 가정신(시키시와라시), 부역신(디오도코로 카미사미), 칠복신(시키후쿠진), 천둥신(카미나리사마) 등의 설화에서 일본의 저승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지조사에서 채록된 이주민 구술 설화 중 각국의 음식, 역사, 종교, 민속, 환경 등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각 민족 고유의 세계관과 정체성이 담긴 설화는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에게 한국과는 다른 이주민 각국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된다.¹⁶⁾ 전통문화와 가치관이 내포된 각국의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이 동일할 수 없으며, 각 개인의 존재 근원인 문화적 정체성이 개인마다 다를 것을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3.2.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이중문화 정체성의 확장

이주민은 모국의 설화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줌으로써 한국 정착과정에서 오랜 기간 억눌러 왔던 자기 존재의 근원인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자긍심을 회복한다. 제보자는 모국설화를 한국인 조사자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섭외가 되는 순간부터 꼼꼼하게 설화를 기억해 내고, 자료를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관을 이끌어 나간다. 이주민 설화의 이야기관은 단순히 이주민 제보자가 자국의 설화만을 구연하고 채록하는 장소가 아니다. 국가별 오랜 전승력을 지녀온 설화 구연을 매개로 태어나서 이주 전까지 살아왔던 모국에서 육화된 모든 문화적 경험을 쏟아내는 자국문화 향유의 장이 된다.

부잣집이다 보니까 밖에 맘대로 못가고 그리고 한 가지는 캄보디아에서는 열여덟 살 되기 전에 거기 쫓들롭이라고 해요. 쫓들롭. 그 여자애는 한 3개월 동안 집에서 아무데도 밖에 못나가고, 저기 뭐지 뭐 여자 공부 같은 거

15) 각국마다 열두 띠를 상징하는 동물의 변화는 없지만 각 민족과 친근한 동물이 열두 띠에 포함되지 않은 내력에 대해 설명하는 설화도 각국에 존재한다. 일본 설화에서는 고양이가 왜 열두 띠에서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몽골에서는 낙타가 왜 열두 띠에서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다.

16) 오정미는 앞의 논문 (2017, 199쪽)에서 뱅크스(Banks)가 언급한 관심의 함양은 다문화교육적으로 접근해 보면 세계문화에 대한 흥미와 이해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있잖아요. [청중: 결혼 준비?] 교법 같은 거. 교육. 예의 [조사자: 예의범절 이런 걸 이제 가르쳐요?] 네네. 3개월 동안 그래서 밖에 못가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 밖에 못가니까 심심하면서 옛날에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스님 같은 거 뭐, 시 있잖아요. 시 봐서 엄마는 초대하면서 그 스님은 이제 유명해요. 시를 잘 하는 스님이었고. 그 엄마가 초대하면서 이제 스님이 시 좀 해달라고, 읽어주라고. 그래 그냥 스님은 거실에 앉아있고 자는 방에 있었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근데 며칠 하다보니까 목소리가 좀 가수보다도 아주 좋은 목소리였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인물 어떻게 생겼는지. 몰래 구멍에서 쳐다보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¹⁷⁾

위 설화는 캄보디아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부잣집 딸이 어머니의 반대로 끝내 이승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뚝과 띠우의 사랑> 이야기다. 캄보디아 출신의 체아다비 제보자는 부잣집 딸 ‘띠우’와 시를 잘 낭송하는 스님 ‘뚝’과의 만남의 계기가 되는 화소로 캄보디아의 풍습 ‘쫄믈릅’을 설정하여 구연 내용에 삽입한다. 제보자는 캄보디아 풍습을 모르는 조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연 과정에서 ‘쫄믈릅’이라는 풍습이 캄보디아 여성의 신부수업으로 18세 이전에 행해지며, 3개월 동안 바깥출입을 금지하고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보자는 뚝과 띠우의 슬픈 죽음의 결말 구연을 마친 뒤, 다른 설화를 준비해 왔음에도 이어서 다른 설화를 구연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쫄믈릅’ 풍습과 관련한 생활문화 이야기로 화제를 확장시킨다. 캄보디아 여성들이 ‘쫄믈릅’ 기간에 배우는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 3개월 동안 강황가루(울금)와 꿀로 고운 피부 관리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인 생활문화에 대해 알려준다. 그런 뒤 화제는 자연스럽게 캄보디아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 ‘울금’으로 전환하여 ‘울금’을 활용한 민간요법과 효능에 대해 경험을 통해 육화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산 후 차가워진 자신의

17) 체아다비(캄보디아, 여, 1983년생, 결혼이주 8년차), ‘뚝과 띠우의 사랑’,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2016년 11월, 11일, 박현숙·김현희·김민수 조사.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강황가루(울금)을 활용한 자국의 민간요법을 적용했던 경험담과 남편의 반응에 얽힌 에피소드를 포함한 이주생활담 구연까지 이어진다. 제보자는 설화 구술 현장에서 캄보디아 문화와 관련된 화제를 확장하여 연쇄 구연을 펼치면서 문화전도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보자가 자국의 문화를 보다 정확하고 많이 알리기 위한 적극성은 이주민 설화 구연 현장 곳곳에서 발견된다. 카자흐스탄의 <돔브라 줄이 두 개인 이유> 설화를 구연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우쿠자노바디나 제보자는 음악으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돔브라 연주의 감응을 조사자에게도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돔브라 연주 영상을 찾아서 7분 동안 한 곡의 음악 전체를 들려준 다음에야 이어서 돔브라가 본래 줄이 많은 악기였는데 왕이 뜨거운 쇳물을 악기에 부어 두 줄만 남게 되었다고 결말을 들려주고 구연을 마쳤다. 돔브라 연주 감상도 제보자 설화 구연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우쿠자노바디나 제보자는 횡성에서 원주로 매일 출퇴근해야 하고 퇴근 이후에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도 다음날 출근 부담이 없는 금요일 밤에 어린 자녀들을 재워놓고 조사자들을 집으로 불러 카자흐스탄 설화와 속담을 구연해 줄 정도로 설화 구연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알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야기관을 주도해 나갔다.¹⁸⁾



▲ 제보자 소장용 마두금



▲ 마두금 연주하는 제보자

몽골의 <마두금> 설화를 구연한 제보자 수흐바타르알탄가바나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마두금 악기를 집안에서 찾아와서 조사자에게 악기를 직접 보여

18) 우쿠자노바디나 제보자는 이야기관에서 총 3회 만났는데, 첫 회를 뺀 나머지 2회는 제보자 퇴근 후 자택에서 23:30에서 23:40까지(2016. 11. 17) 약 70분 가량, 19:00부터 22:00까지(2016. 12. 16) 약 180분 가량 단독으로 이야기관을 이끌어 나갔다.

주면서 설화 내용과 관련된 부분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직접 연주하여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이주민 설화 제보자들은 보다 정확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귀찮고 번거로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태국의 설화를 구연한 누자리 제보자는 어린 유아 자녀와 함께 이야기관에 참여하였는데, 1차 조사 때에 고향 마을의 전설 1편을 구연한 뒤 동석한 나우봉 제보자의 구연 내용을 보충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누자리 제보자가 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구연했던 전설의 정보가 일부 잘못되었다면서 조사자의 핸드폰 메시지로 전설 내용의 정정 부분과 관련 사진을 보내왔다. 누자리 제보자는 2차 조사 때 여전히 어린 자녀를 데리고는 참여하였으나 1차 이야기관에서의 소극적이었던 모습과는 달리 <소원 들어주는 자매 나무> 설화 재구연을 비롯하여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 전설, 태국에서 널리 알려진 민담, 민간요법까지¹⁹⁾ 적극적으로 이야기관에 동참하였다. 또한, 일본 국적의 모우에히로코 제보자는 2차 조사 때 1차 조사에서 구연한 <혀 잘린 참새> 내용이 다른 이야기와 혼종 되었다면서 스스로 재녹음을 요청하여 서사를 수정하기도 하고, 혹여 자신의 한국어 번역이 일본 문화 전달의 정확성을 떨어뜨릴까 우려하여 모국어를 찾아서 조사자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각국의 제보자들이 모국설화 구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주민 설화 구연 현장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관심조차 주지 않던 변방의 문화,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했던 자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 주류가 아닌 주변에 머물러 있던 이주민 ‘나’가 설화 구연 현장에서는 중심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한국문화를 빨리 배우고 익혀 수용만 해야 했던 ‘나’에서 모국의 세계관

19) 누자리(태국, 여, 1975년생, 결혼이주 10년차), 2017년 11월 18일,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박현숙·김현희 조사.

과 정서가 담긴 설화를 통해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는 모국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알리는 ‘나’로 변화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주민 설화 구연 현장에 참여하는 제보자들은 자국의 문화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문화 전도사로서의 책무감도 지니게 된다.

제보자가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모국설화를 기억하는 과정은 한국 정착 과정에서 억눌러 놓았던 자기 존재의 근원이자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 마소나(J. Massonat)는 정체성은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 차원에서 확립된다고 하였다.²⁰⁾ 이주민 설화 구연 과정을 마소나(J. Massonat)의 정체성 확립의 요건에 빗대어 보면 이주민이 모국설화를 알린다는 긍정적인 사명감의 자질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잘못 알거나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올바른 정보를 찾아 제공하면서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 차원에서 이주민 설화 구연 제보자는 조사자에게 새로운 문화 형성의 주체자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동일 국적의 제보자가 중복 구연한 설화라도 제보자 개별의 각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각국의 모국설화를 구연한 제보자는 모두 설화 향유자이자 전승자라는 의미부여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주민이 문화 적응에 있어 모국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유형(Integration)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억눌러 놓았던 이주민의 문화 정체성 회복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한다. 이주민 제보자는 자신이 구술하는 모국설화의 문화적 가치를 발현하는 존재로 역

20)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스스로의 긍정적인 자질 부여,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인식, 시간·위기의 순간·외부사건 등으로 인한 변형에도 단일성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지속성을 정체성 확립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이 부여하는 가치 인정, 개별성을 확인해주는 유일성, 일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일원임을 인정받을 유사성을 정체성 확립 요건으로 제시하였다(마달레나 드 카를로 지음, 장한업 옮김, 앞의 책, 114쪽).

할을 수행해 가면서 자기 존재론적 존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주민이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면 자국문화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는 이중문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3.3. 문학적 소통과 확장을 통한 상호문화 공감력 증진

이주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판에서 제보자가 모국 설화라고 소개하는 설화 중에는 국가별 유사한 서사구조나 화소를 지닌 설화가 많이 채록된다. 이러한 설화는 원형성과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문화 구성원 간의 문학적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낸다.

필자가 참여한 이야기판에서 한국설화와 유사성을 지닌 이주민 설화를 대략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번호	한국 설화	이주민 설화
1	<칠월칠석의 유래>	<칠월칠석의 유래>(일본·중국)
2	<방귀쟁이 머느리>	<해꼬리요매상>(일본)
3	<지하국대적퇴치설화>	<쿨라타이 장군>(카자흐스탄) <공주 납치한 괴물을 물리친 닷산>(베트남)
4	<콩쥐팥쥐>	<뽕감>(베트남), <빨라부텅>(태국)
5	<두더지신랑>	<쥐신랑>(일본)
6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1)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일본)
7	<팔죽할멈과 호랑이>	<원숭이와 게>(일본)
8	<고려장 마치고 지게 쟁겨 온 손자>	<할머니 버린 지게 쟁겨 온 손자>(네팔)
9	<아내의 마음 돌이킨 효자>	<천염으로 어머니 살찌운 효자>(몽골)
10	<호랑이에게 알을 빼앗긴 거북이>	<늑대에게 알을 빼앗긴 까치>(몽골)
11	<옥새 찾은 가짜 점쟁이>	<도둑 잡은 남걸>(몽골)
12	<지혜로운 아이>	<이큐상의 꾀>(일본)
13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호랑이를 물리친 오누이>(대만) <무서운 괴물 '마잔'>(베트남) ²¹⁾
14	<홍부놀부>	<별나무>(베트남)
15	<구렁덩덩신선비>	<코코넛 아이>(베트남)
16	<반쪽이>	
17	<열두 띠 이야기>	<열두 띠 이야기> (중국·일본·몽골·베트남)

위에 제시한 비교 설화는 대부분 동일한 서사 구조와 화소를 지닌다.

<3>은 전 세계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지는 광포 설화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이다. 한국에는 기본형과 다양한 변이형 설화가 다수 채록되어 있고, 카자흐스탄 설화는 <쿨라타이 장군>²²⁾, 베트남 설화는 <공주 납치한 괴물을 물리친 닛산>²³⁾을 현지조사에서 채록하였다. 이 설화는 ‘괴물의 여인 납치, 용사의 지하국 통로 발견, 용사의 지하국 괴물 퇴치 및 여인 구출, 동행자의 배신, 조력자의 도움으로 지하국 탈출, 여인과 결연’이라는 공통된 서사 구조와 화소를 지니고 있고 서사의 완결성도 매우 높다. <6>과 <8>은 한국의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에 얽힌 두 가지 유형의 설화이다. <6>은 아무도 풀지 못하는 난제를 버림의 대상이 된 노인이 삶에서 체득한 지혜로 현답을 제시하여 고려장 풍습을 없앴다는 문제형 서사로 일본 설화도 동일하다. <8>의 한국설화는 할머니를 버린 아버지의 지계를 되가져온 아들의 지혜로 부친이 잘못을 깨닫고 할머니를 다시 모셨고, 이후 고려장 풍습이 없어졌다는 지계형 서사이다. 네팔의 지계형 설화는 한국설화와 서사는 동일하지만 고려장 풍습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7>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물을 주변의 다양한 도구들이 힘을 합쳐 포악한 호랑이와 교활한 원숭이를 물리친 이야기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잘 담겨 있다. <14>는 베트남 <별나무>는 한국의 <홍부늬부> 이야기의 제비 다리 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방담이고, <15>·<16>은 베트남의 <코코넛 아이> 설화는 결혼 이전의 전반부 서사는 한국의 <반쪽이> 설화 구조와 유사하며 후반부 결혼 화소부터는 한국의 <구렁덩덩신선비> 설화 구조와 유사하다.

모국설화를 구연한 제보자에게 조사자가 한국에도 유사한 설화가 있다

21) 프영(베트남, 여, 1988년생, 유학 3년차),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 2017년 12월 7일, 오정미 조사.

22) 우쿠자노바디나(카자흐스탄, 여, 1981년생, 결혼이주 13년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2016년 11월 17일, 박현숙·김현희 조사.

23) 저우티탄웅(베트남, 여, 1985년생, 결혼이주 9년차),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2018년 3월 9일, 박현숙 조사.

고 이야기를 들려주면 처음에는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이후에는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주변인의 시선과 편견을 받았던 이주민은 모국설화를 통해 한국과의 동질성을 발견하고는 조사자에게 이전보다 높은 친밀감을 보인다. 정주민 역시 한국설화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주민의 구술 설화를 통해 ‘낯섦’과 ‘다름’의 시선으로만 바라본 이주민 문화에 대한 공감력을 형성한다. 설화는 서사 이면의 상징적 의미나 맥락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서사의 구조적 유사성만으로도 각기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구성원 간의 상호문화의 이해와 공감력을 확장시킨다.

그런데 설화를 통한 문화적 소통과 확장은 단지 내용상의 유사성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적 함의를 지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문학적 언어의 정수로서 설화가 지니는 미적 깊이와 감응력은 문화적 가치 생산 및 발현 과정에서 특별함을 부여한다. 표층적 지식 정보 수준을 넘어서 심층적이고 원형적인 차원의 교감과 공유가 실현된다.²⁴⁾ 따라서 한 민족 고유의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설화라 하더라도 다문화 구성원 간의 문화적 공감력과 감응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일례로 캄보디아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뚝과 띠우의 사랑> 설화를 보자.

캄보디아 설화 <뚝과 띠우의 사랑>은 ‘케이크는 그릇보다 클 수 없다’는 캄보디아 속담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다.

아 그리고 원래는 그런 말은 우리 속담에 있어요. [조사자: 어떤 속담이 있어요?] 놀리는툼진리요 [조사자: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번역하면 그 부모님이 항상 높아요. 부모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해야 해요. 그런 뜻이에요. [조사자: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네네. 그냥 부모님 따라 해야 해요. [조사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그럼 뚝이나 띠우나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 속담에?] 속담에? [조사자: 뚝띠우 이야기랑 관련된 말 있어요?] 만약에 이런 속담 말

24) 신동훈, 앞의 논문, 298쪽.

하면, 다 그 똥띠우 생각 나요. (……) [조사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속담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똥띠우 이야기를 생각한다는 거죠?] 네.²⁵⁾

제보자가 캄보디아 설화 <똥과 띠우의 사랑> 설화 구연을 마친 뒤 이어서 ‘케이크는 그릇보다 클 수 없다’는 캄보디아 속담을 구연하였다. 속담은 제보자의 설명처럼 자녀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부모가 자녀 배우자 선택의 결정권을 가지는 캄보디아의 결혼문화, 캄보디아인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잘 반영된 속담이다. 속담은 설화보다 한 민족의 정서와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명료하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속담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똥과 띠우의 사랑> 설화를 떠올린다. 그리고 깊이 사랑하는 남녀에게 ‘똥띠우의 사랑 같다’고 표현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 어머니를 비유할 때는 띠우의 어머니 ‘예이관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똥과 띠우의 사랑> 설화는 캄보디아인의 생활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²⁶⁾ 제주도민들이 일상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여인을 빗대어 구전신화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악녀 ‘노일제대귀일’의 딸 같은 ×’라는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다.

<똥과 띠우의 사랑> 설화에서 딸 띠우는 어머니가 정해놓은 좋은 조건 의 남성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똥과 결혼한다. 어머니의 계략으로 결국 똥은 살해당하고 띠우는 똥을 따라서 죽음을 선택한다. 캄보디아인들이 이 설화에서 자식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속담을 떠올리는 것은 어머니의 결정을 거스른 띠우 행동의 결과가 비극적 죽음이기 때문이다.²⁷⁾ 하

25) 소다니스(캄보디아, 여, 1986년생, 유학 4년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2016년 11월 14일, 박현숙·김민수 조사.

26) 저랑 선생님이랑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못사는 사이고 이제 **엄마잖아요. 그럼 바로 둘이 가르잖아요. 그럼 얘기해요. 그 할머니는 ‘예이관’이에요. ‘예이관.’ 아주 막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엄마는 예이관처럼 한대. 너는 어떡하냐.” (……) 그럼 이제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거기는 둘은 이름은 ‘똥띠우’였어요. 여자는 띠우이고 남자는 똥이에요. “너는 똥띠우처럼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이구나.” 이렇게 해요.(체 아다비(캄보디아, 여, 1983년생, 결혼이주 8년차), ‘똥과 띠우의 사랑’,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2016년 11월 11일, 박현숙·김현희·김민수 조사.)

지만 이 설화에서 핵심 화두의 상징적 함의는 부모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삶에 대한 주체적인 자기결정권이다. 뚝과 띠우의 비극적 죽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소유욕이 불러온 화(禍)이다. 그러므로 설화에서는 속담과는 달리 부모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캄보디아의 또 다른 설화 <흰 코끼리 왕의 딸>²⁸⁾은 <뚝과 띠우의 사랑> 설화에서의 문제 제기를 더욱 심층적이고 원형적인 상징으로 풀어낸다. 이 설화에는 코끼리 왕의 오줌을 먹고 태어난 딸이 산속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서 탑에서 산다. 딸은 어느 날 숲에서 만난 왕자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캄보디아 결혼문화에 따라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망설이지만, 왕자의 권유로 이내 청혼을 받아들이고 왕자를 따라 나선다. 딸을 찾아 나선 코끼리 왕은 결혼식을 막으려고 성의 문 7-8개를 온몸으로 부수어 죽음 직전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딸이 아버지를 살리려고 그만 둘 것을 요청 하지만 코끼리 왕은 죽어도 괜찮다면서 마지막 문을 부수고 죽음을 맞이한다. 코끼리왕의 죽음은 딸을 부모의 부속물로 여기고 그 딸의 성장과 독립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의 최후 모습을 상징한다. <뚝과 띠우의 사랑> 설화에서 어머니가 잔혹한 방법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뚝과 띠우의 사랑> 설화는 캄보디아 고유의 문화적 의미를 지니지만, 재맥락화를 통해 상호문화에 대한 공감력과 감응력을 증진시켜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녀의 삶을 소유하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인류 보편의 문화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정주민에게 이주민 구술 설화는 한국설화와

27) 김나이키(캄보디아, 여, 1991년생, 결혼이주 6년차)는 <뚝과 띠우의 사랑> 설화를 구연하면서 띠우의 어머니 에이판을 도왔던 마을 사람들까지 죽임을 당하셔서 그 마을 사람들이 뚝과 띠우의 사랑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뚝과 띠우의 사랑> 설화에서 뚝과 띠우의 사랑은 주인공의 죽음이든 주변 인물의 죽음이든 죽음의 결과를 불러온 원인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28) 체아다비(캄보디아, 여, 1983년생, 결혼이주 8년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2016년 12월 17일, 박현숙·김민수 조사.

다를 거라는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해체하여 문화 인식의 사고를 유연하게 키워준다.

3.4. 이야기 구술문화적 속성과 가치의 발현

국가별 널리 알려진 설화는 제보자별로 중복채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일국가의 동일설화라도 제보자에 따라서 설화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는 이야기관에서 설화의 가변적이고 개방적인 속성이 발현된 결과이다. 그리고 제보자와 조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현지조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동일설화의 동일서사를 지나치게 많이 채록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변이성을 띤 다양한 각편의 이주민 설화 채록은 중요하다. 다양한 변이 각편이 많을수록 서사가 풍부해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서사를 의미화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활용면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일본의 <설녀 유키온나> 설화는 유키온나가 산에서 만난 두 남자 중에서 연장자에게 입김을 불어서 얼려 죽인 뒤 어린 남자에게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경고한다. 살아남은 남자가 어느 날 찾아온 여자와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아내에게 비밀을 발설한다. 유키온나의 변신체였던 아내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남자를 죽이지 않고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조사된 자료들은 대체로 기본 줄거리는 유사하나 몇 몇 화소에 차이를 보인다. 등장인물이 ‘부자(父子)’로 설정되는 경우와 ‘형제’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아내에게 비밀을 발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유키온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도 집을 떠나는 경우와 그 자리에서 녹아 사라지는 경우로 달라진다. 필자가 만난 곤도사끼에 제보자는 기본 서사에 남편이 금기를 어기게 된 배경과 유키온나가 사람을 죽이는 이유에 대하여 첨언한다.²⁹⁾ 남편이 금기를 위반한 이유는 세월이 흘러도

29) 곤도사끼에(일본, 여, 1966년생, 결혼이주 20년차),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2016년 12월

늙지 않는 아내의 모습이 신기하여 과거에 경험한 신기한 일을 아내에게 들려주게 된 것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유키온나가 사람을 얼려 죽이는 이유는 죽은 사람의 남은 운명을 가져가서 자신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요소들로 곤도사끼에 제보자의 <설녀 유키온나>는 다른 동일설화에 비해 풍부한 서사성을 지닌다.

제보자에 따라서 <설녀 유키온나> 설화에 대한 반응과 해석에도 차이를 보인다.

그런 상상의 세계겠지만, 너무 추워서 얼어 죽기도 했겠죠. 그 동북지방. 그래 뭐 ‘그런 여자 귀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슬픈 얘기죠.³⁰⁾

노마치유카 제보자는 <설녀 유키온나> 설화가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주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설화의 창작배경을 찾고 있다.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은 현실적 상황에 설녀같은 귀신이 죽었다는 상상력이 가미되어 창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를 일반적인 귀신 이야기로 여기지 않는다. 차가운 기운으로 사람을 죽이는 요괴 설녀보다 남편의 금기 위반으로 인해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한 가정의 여인으로서의 설녀에 감정이 이입되어 슬픈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코마츠미호 제보자는 조사자가 자녀들에게 <설녀 유키온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 묻는 질문에 자신은 무서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들려주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코마츠미호 제보자는 <설녀 유키온나> 설화를 추운 지역에서 전해지는 차갑고 무서운 귀신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³¹⁾

동일설화에 대한 제보자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자료는 다양한 측면에서

16일, 박현숙·김민수 조사.

30) 노마치유카(일본, 여, 1974년생, 결혼 6년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1월 12일, 조홍윤 조사.

31) 코마츠미호(일본, 여, 1969년생, 결혼이주 20년차),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2016년 11월 18일, 박현숙 조사.

의미화 시킬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각편이 된다.

캄보디아 중부 캄퐁치낭에 위치해 있는 <냉경리산>의 유래에 얽힌 설화도 필자가 두 명의 캄보디아 제보자에게서 중복채록을 하였다. 동일설화이지만 제보자별 서사에서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서사의 중요한 변이 요소일 때도 있지만 제보자의 착종된 기억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중복 채록한 자료 비교를 통해 착종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필자가 중복 채록한 두 편의 <냉경리산> 설화는 체아다비와 소다니스 제보자가 구연하였다. 체아다비 제보자가 구연한 설화를 a³²⁾, 소다니스 제보자가 구연한 설화를 b³³⁾ 지칭하기로 한다. 두 편의 공통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왕이 한 마을에 사는 12딸을 궁으로 데려간다.
- (2) 거인이 왕에게 마법을 걸어 임신한 12자매의 눈을 뽑아 동굴에 가두게 하다.
- (3) 12자매가 동굴 안에서 출산한 아기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 (4) 막내가 몰래 아들을 키우다.
- (5) 막내의 아들이 성장하여 12자매의 눈을 찾기 위하여 왕궁으로 가다.
- (6) 거인이 막내의 아들을 자기 딸에게 편지 심부름을 보내다.
- (7) 조력자가 남자를 죽이라는 편지 내용을 결혼하라는 내용으로 바꿔치기하다.
- (8) 거인의 딸이 막내의 아들과 결혼하다.
- (9) 막내의 아들이 12자매의 눈을 찾다.
- (10) 거인의 딸이 막내의 아들을 따라가려다가 죽어서 냉경리산이 되다.

두 편에서 차이가 나는 요소를 간략히 살펴보면, (1) 12자매가 궁으로 가

32) 체아다비(캄보디아, 여, 1983년생, 결혼이주 8년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2016년 11월 11일, 박현숙·김현희·김민수 조사.

33) 소다니스(캄보디아, 여, 1986년생, 유학 4년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2016년 11월 14일, 박현숙·김민수 조사.

게 되는 계기가 a는 12자매가 중 막내의 아름다움에 반한 거인이 왕으로 변신하여 12자매를 궁으로 데려가서 궁녀로 삼고, b는 가난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버려진 12자매를 왕이 데려가 아내로 삼는다. (2) 12자매의 눈을 뽑아 동굴에 가두는 이유가 a는 12자매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이고, b는 거인이 12자매를 질투하여 왕에게 마법을 걸어 가두게 한다. 12자매 중 11자매는 두 눈이 다 뽑히고, 막내만 한쪽 눈을 뽑는 요소는 공통적이다. (10) 마지막 결과에서 a는 막내의 아들이 거인의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12자매의 눈을 되찾아 달아나는 중에 잠에서 깬 거인의 딸이 남편이 탄 용마의 꼬리를 잡고 필사적으로 따라오다가 남편이 말꼬리를 잘라서 떨어진 여인이 산이 되었다. 산의 형상은 여자가 누운 모습이고, 그 지역 사람들은 냉정리산에서 자라는 고사리를 먹지 않는다. 이유는 고사리가 사람이 죽어서 된 산에서 자라기 때문이라는 후일담을 덧붙인다. 그런데 b는 막내의 아들이 거인의 딸과 결혼 후 12자매의 눈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고 거인의 딸은 남편을 쫓아가다가 쓰러져 가지 말라는 손짓을 하며 죽어서 산이 되었다. 산의 형상은 가지 말라는 손짓을 하며 쓰러진 여인의 모습이다. a의 서사에서 냉정리는 12자매 중 가장 아름다운 막내딸의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고, b의 서사에서는 남편을 따라가려다가 쓰러져 죽은 거인 딸의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다.

a설화는 제보자의 표현력이 풍부하여 서사의 길이가 더 길지만 서사 전개와 앞뒤 맥락이 잘 맞지 않는다. 냉정리산의 지명이 남자주인공의 어머니로 설정된 점, 마음에 둔 냉정리가 궁녀로 궁궐에 있음에도 12자매를 동굴에 가두는 거인의 동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서사를 비교했을 때 산의 형상이 a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여인의 누운 형상, b에서는 쓰러져서 가지 말라고 손짓을 하는 여인의 형상이다. 형상에 대한 해석은 제보자마다 제각각일 수 있으나 산 이름이 되는 행위자는 서사구조 상 달라질 수가 없다. 두 편 모두 행위자는 거인의 딸이므로 냉정리라는 이름은 거인의 딸

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³⁴⁾ 제보자가 서사 맥락적 불일치를 보이는 설화를 구연했을 때 중복 채록된 설화를 통해 불일치 지점을 찾아 서사적 맥락을 재구할 수 있다.

이주민 설화 구연 현장에서는 이야기 구술 문화적 특성인 협력구연을 통해 보다 풍부한 서사성과 완결성을 지닌 설화를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제보자 여러 명이 한 이야기관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이야기관 구성이 이루어진다. 제보자 한 명이 준비해온 레퍼토리가 다 끝난 뒤 다른 제보자가 이어서 구연하는 순차구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참여 제보자가 자율적으로 자국의 설화 몇 편씩 교대로 구연하는 교차구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러 명의 제보자가 참여하는 순차구연 이야기관에서는 한 명의 주 제보자가 구연 할 때는 다른 제보자는 주로 동조하기, 질문하기, 반응하기 등 청중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동일 국적 이야기관에서 순차구연으로 진행된다면 대기 중인 제보자가 적극적으로 청중의 역할을 하거나 아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협력구연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다국적 이야기관에서 순차구연은 주 제보자가 구연하는 동안에 대기 중인 다른 국적의 제보자의 적극적인 협력구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른 국적의 제보자에게는 낯선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다국적 이야기관처럼 협력구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야기관에는 베트남 국적의 호티홍녀와 엔티터번 제보자, 필리핀 국적의 메리안이 참여하였다. 이야기관은 주로 호티홍녀 제보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엔티터번 제보자는 한국 이주 경력이 11년차였지만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적극적으로 설화 구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조사자가 구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메리안 제보자에게 필리핀 아수왕 귀신에 대해 아는 지 물었는데, 모른다고 하였다. 그래서 화제를 전환하여 머리에 내장만 달

34) 추후 조사된 김나이키(캄보디아, 여, 1991년생, 결혼이주 6년차)의 <냉정리산> 전설에서도 냉정리는 거인 딸의 이름이다. 그리고 냉정리와 막내공주의 아들이 사랑하는 관계로 설정되는 각편이다.

린 귀신 이야기를 아는지 물었다. 그러자 필리핀 국적의 메리안 제보자가 안다고 대답하였고, 한국어 표현이 미숙하여 적극적으로 이야기판에 참여하지 못했던 베트남 국적의 엔티터번 제보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메리안과 엔티터번 두 다국적 제보자가 협력구연으로 한 편의 완성도 있는 설화를 구연하였다.

필자가 지칭하는 ‘내장귀신’은 국가와 제보자마다 달리 지칭한다. 필자가 만난 태국의 와닛차진시리와닛 제보자는 ‘크라스’라 지칭하며 머리에 심장과 내장이 있고, 낮에는 사람으로 변신했다가 밤에 귀신이 되어 돌아다니고 주로 가축의 내장을 먹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의 엔티터번 제보자는 ‘말라이’라고 지칭하며 특징은 목에 3개의 칼자국이 있고, 필리핀의 메리안 제보자는 ‘마라낭갈’이라고 지칭하며 특징은 팔이 없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에서는 ‘압’, 라오스에서는 ‘카수’, 인도네시아는 ‘셀락 메탐’ 등 나라마다 다양하게 불리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귀신이다.

메리안(필리핀): 어 우리나라는 밤에도 임신 사람들 나왔으면은 꼭, 뭐가? 이불? 몸 꼭 다 덮어야 돼. 얼굴만 하고, 몸 꼭 덮어야지. /엔티터번(베트남): 하얀 색 안 돼요. /[조사자1: 흰 색 안 되고?] /메리안(필리핀): 하얀 색 안 돼. /엔티터번(베트남):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 메리안(필리핀): 무조건. /엔티터번(베트남): 다 봐요. [조사자1: 안에가 보이니까?] 네, 다 봐요. /메리안(필리핀): 근데 나왔을 때는 우리 항상... /엔티터번(베트남): 검은색 옷 입고? /메리안(필리핀): 조금, 조금. /엔티터번(베트남): 어, 조금하고 마늘. /메리안(필리핀): 마늘. 항상 갖고 다녀요.

이 이야기판이 재미있는 점은 베트남 국적과 필리핀 국적의 두 제보자가 서로 교대로 내용을 덧붙이는 협력구연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 두 제보자가 교대로 한 마디씩 덧붙인 내용을 조합하면 ‘임신한 사람이 밤에 다닐 때는 꼭 이불로 몸을 가려야 한다(메리안). 그런데 몸을 가리는 도구의 색상은 무조건 흰색을 피해야 한다(엔티터번, 메리안). 왜냐하면 흰

색은 투명해서 내장귀신에게 임신부의 몸과 몸 안의 태반이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엔티터번). 그래서 가능한 검정색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메리안), 내장귀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면 항상 소금(메리안)과 마늘(엔티터번)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로 정리된다. 두 사람의 구연이지만 마치 한 사람이 이야기를 구연하는 것처럼 서사 연결이 자연스럽다. 두 제보자는 협력구연으로 잘 때는 옆드려 자야하고, 저녁 7시부터 밤12시까지는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방비책도 알려준다. 다만, 방비책 가운데에서는 국가별 종교적·문화적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엔티터번 제보자는 베트남에서 불교 믿는 사람이 많아서 불상을 집에 두면 내장귀신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고, 메리안 제보자는 필리핀 사람들의 80-90%가 믿는 종교가 가톨릭이라서 집에 십자가를 두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알려준다. 두 제보자는 모두 민간에서 전해지는 귀신이 실존한다고 믿으며, 그와 관련된 잔혹한 사건이 실제 많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이야기관에서의 협력구연은 단편 서사로 그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확장시키고 서사성을 풍부하게 만든다. 이는 이주민 설화 자료 확보 방식이 이야기 구술문화의 주요 속성인 현장성을 기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이주민 제보자는 이주민 설화 구연 현장에서 이야기 구술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여러 제보자가 지닌 기억의 공유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제보자가 이야기 구술문화의 향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력구연은 일반적으로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술 설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진 제보자별 구술 설화 가운데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는 설화 각편의 채록 역시 이주민 구술 설화의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는 광의의 협력구연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전국 이주민 설화 구술 현장에서 채록된 일본 설화를 보자.

강원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모우에히로코 제보자는 <가뭇에 비 내려준

갯과> 구술을 통해 일본의 대표적인 요괴 갯과를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로 형상한다. 또 <힘이 약한 남자와 갯과의 거래> 구술을 통해서도 갯과가 다른 귀신의 형상과 닮고 싶어서 물갈퀴를 제거하기를 갈망하는 존재로 형상한다.³⁵⁾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코마즈미호 제보자는 <갯과의 형상> 구술을 통해 갯과는 물가에 살며 접시처럼 생긴 머리 모양을 하고 물에 살기 때문에 손에는 물갈퀴가 있으며 요괴이지만 현대에는 귀여운 이미지라는 정보를 제공한다.³⁶⁾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마츠자키료코 제보자는 갯과가 오이를 좋아하고 힘이 세고 스모를 잘하며 인간에게 스모 대결을 제안하였다가 지면 인간의 항문에서 내장을 빼앗는 갯과의 속성과 갯과가 머리에 이고 있는 접시물이 떨어지게 하면 힘이 빠진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일본의 오래된 절에 가면 갯과 미라가 있다는 정보를 통해 갯과 존재에 대한 신빙성을 높인다.³⁷⁾

횡성에 거주하는 모우에히로코 제보자와 대구에 거주하는 마츠자키료코 제보자가 각각 다른 구연 현장에서 구술한 설화 <코가 길어지는 텐구의 부채>와 <텐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텐구의 특징은 코가 길고 크며 불그스름한 얼굴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를 들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요괴로 코가 길어지게 하는 신비한 부채나 한국의 도깨비 감투처럼 입으면 몸이 보이지 않는 신비한 투명 도롱이를 가지고 있다.

일본 산속에 사는 야만바 역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제보자에게 채록되었지만, 그 각편의 에피소드를 종합하면 야만바는 산속에 사는 거인할머니로 인간을 잡아먹거나 위협하며, 변신 능력이 있다. 그리고 부스스한

35) 모우에히로코(일본, 여, 1967년생, 결혼이주 19년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2016년 12월 17일, 박현숙·김민수 조사.

36) 코마즈미호(일본, 여, 1969년생, 결혼이주 20년차),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2016년 11월 18일, 박현숙 조사.

37) 마츠자키료코(일본, 여, 1982년생, 이주노동 8년차), 대구광역시 중구, 2017년 1월 6일, 조홍윤 외 조사.

흰 머리에, 무섭게 생긴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고독한 존재이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화가 나면 무서운 성격 지닌 요괴라는 많은 정보를 현재까지 채록된 여러 구술 설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야만바와 조우 한 후에 원인불명의 병에 걸리고 한편으로 야만바의 방문을 받은 집은 부자가 된다는³⁸⁾ 에피소드를 지닌 각편을 다른 제보자가 구술한다면 야만바가 지닌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까지 확보하여 설화의 동일 인물군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확보할 수 있다.

제보자별 각각의 다른 에피소드를 지닌 단편의 구술 설화이지만 그 에피소드를 종합하면 다양한 에피소드를 지닌 장편의 구술 설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설화 속 동일 인물군의 각편 설화 역시 협력구연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에피소드의 자료 확보는 이야기 구술문화적 특성인 현장성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4. 이주민 구술 설화의 활용 방안

현지조사를 통해 확보한 이주민 설화, 생애담, 신이체험담, 속담, 수수께끼, 민속까지 이주민의 총체적 구술 담화 자료는 문학연구 외에 사회학, 문화인류학, 종교학, 철학, 역사학, 교육학, 여성학, 아동학, 복지학, 경제학, 정치학, 문화콘텐츠학 등 여러 인접학문 연구의 저변 확대와 융복합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보자의 구술 담화 서사에 대한 반응은 심리학과 인지치료, 문학치료학 등에서 구술 서사를 활용한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의 현실 대응적 실험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교육에서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 이글에서는 이주민 구술 설화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가운데 학문적 차원, 인적 차원, 문화적·교육적 차원

38) 박희영, 「일본 요괴 문화 속 여성 요괴의 생성과 이중성의 구조」, 『일본근대학연구』 42,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의 세 가지 측면에서 활용 방안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이주민 구술 설화는 학문적 차원으로 문학치료학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학치료학은 인간이 곧 문학이며 문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기본 철학을 지닌다.³⁹⁾ 문학치료학에서는 오랜 세월 생명력을 이어오면서 검증 받은 설화를 기반으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와 회복의 이야기로서 자기 서사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다. 설화는 인생의 제반 문제를 전형적이고 상징적이며 심층적인 방식으로 함축한다. 그래서 설화의 형태로 수행되는 자기서사 진단은 객관적이고 구조적이며 총체적이다.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질 경우 한 개인의 존재적 본질은 단번에 그 핵심을 드러내는⁴⁰⁾ 문학치료적 효능은 다양한 임상과 연구를 통해 증명해 내고 있다. 수많은 문학치료학 연구 실적을 통해 현지조사에서 발굴해낸 한국구비문학대계(전82권)에 수록된 한국 구전 설화의 가치는 이미 인정받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는 다문화시대에 맞게 인권, 문화, 교육, 행정 각 분야가 변화하고 있다. 인간과 문학을 중심에 두고 있는 문학치료학에서도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이주민 구술 설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학치료학에서도 외국 설화를 활용한 문학치료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외국설화와 한국설화의 비교 분석을 통한 문학치료적 의미를 찾는 연구⁴¹⁾와 외국설화, 특히 독일의 그림형제 민담이 지닌 문학치

39) 정운채, 「문학치료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48쪽.

40) 신동훈, 「문학치료에서 외국설화의 활용 가능성 탐색」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0쪽.

41) 하은하, 「베트남 설화 <금구전(金龜傳)>과의 비교를 통해 본 <호동왕자와 나랑공주>의 문학치료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김균태, 「귀(두더지) 혼인담의 서사적 의미와 문학치료 활용」, 『문학치료연구』 2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하은하, 「〈콩쥐팍쥐〉 설화에 나타난 부부 갈등 양상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 『인문논총』 28, 서울여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4.

료학의 작품서사로써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연구가 그러하다.⁴²⁾ 나아가 외국설화의 활용 가능성을 넘어 문학치료를 위한 자기서사 종합 진단도구 개발 자료로 미얀마설화 <비구름 악어>, 독일 그림형제 민담 <고집쟁이 아이>, <열두 오빠>, <백설공주> 등 외국설화 일부가 적용되기도 하였다.⁴³⁾

문학치료 자기서사 진단도구에 외국설화의 적용이 가능한 것은 지역이나 민족의 경계를 떠나서 설화는 상징적이면서 원형적인 인류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화소와 구조가 탄탄한 좋은 설화는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 문학치료의 좋은 작품서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학치료학 연구에 활용되거나 적용된 외국설화는 글로 잘 다듬어진 외국의 설화를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이다. 설화는 직접대면성, 가변성, 개방성을 지닌 구술문학이다. 현지조사로 채록된 이주민 구술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같이 가다듬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이 각편의 자료가 다수 담겨 있고, 제보자의 반응이나 청중과의 소통까지 살아있는 현장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또 이주민 구술 설화가 지닌 다기성은 한 작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간 관계에 대한 서사적 의미를 발견해 내게 한다. 서사의 핵심 화두의 성격 규정에 따라 관계와 의미는 다른 가지로 뻗어나가게 된다. 일례로 태국의 <흰 코끼리 왕의 딸> 설화를 필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서사적 의미로 풀어내지만, 남녀관계의 서사적 의미로 풀어낼 수도 있다. 한국의 <콩쥐팍쥐>와 유사한 베트남의 <땀감>과 태국의 <쁘라부텅> 설화를 하든하는 부부서사적 의미로 풀어내지만⁴⁴⁾ 필자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부모서사, 자녀서사적 의미로 풀어낸다.⁴⁵⁾ 다기성을 지닌 이주민 구술 설화

42) 신동훈, 앞의 논문, 2013.

43) 신동훈, 「문학치료를 위한 자기서사 종합 진단도구 개발 연구」, 한국문학치료학회 제 173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8. 3. 31.

44) 하은하, 앞의 논문, 2014.

는 문학치료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문학치료학에서 이주민 구술 설화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설화가 지닌 인류 보편성 때문만은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한 상태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유학생을 포함하여 백만 명이 훨씬 넘는 외국인 이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나날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자국민들끼리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 이주민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⁴⁶⁾ 이제 이주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사회 구성원이다. 문학치료학에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작품서사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주민은 여러 장애 요소로 인해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인간관계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필자가 만난 제보자들 역시 이주생활담을 구연하면서 직접적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묘한 뉘앙스로 어려움을 대신 전하기도 한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위기를 겪고 작품서사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문학치료학이야말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 가까이에서 있어야 할 학문이다. 이주민에게 어느 나라 설화 작품서사로 문학치료를 해도 상관은 없다. 좋은 설화는 누구에게나 감응력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설화는 보편성도 지니고 있지만,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담는 특수성 역시 지니고 있다. 레비스트로스는 『인종과 역사(Race et histoire)』에서 모든 인간 집단은 민족중심주의적 편견을 가진다고 하였다.⁴⁷⁾ 이주민 대상

45) 박현숙, 『‘콩쥐팍쥐’ 옛이야기 그림책 견주기』, 『열린어린이』, 2015년 2월호 참조.

46) 신동훈, 앞의 논문, 2017, 282-283쪽.

47) 인류는 부족, 언어 집단, 심지어 마을의 경계선에서 멈춰 선다. 그래서 수많은 원시인조차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부족, 집단, 또는 마을은 인간적 덕성을-극단적인 경우에는 본성조차-가지지 못해 기껏해야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땅 위의 원숭이’, ‘기생충의 알’ 등으로 불러 마땅한 사람들임을 은연중에 암시한다(마

의 문학치료에서 이주민의 모국설화를 작품서사로 활용하여 문학치료가 이루어지면 한국설화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품서사의 오독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이주 경력이 짧거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내담자에게 그들에게 익숙한 모국 설화를 활용하면 긍정적인 문학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이주민 구술 설화와 문학치료, 이주민과 문학치료의 연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다.

둘째, 인적 차원에서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주민 구술 설화 조사팀에게 설화 및 구술 담화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가 136명이다. 이들 중 설화를 구연할 때 표현, 전달,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개성을 지닌 유능한 이야기꾼의 면모를 지닌 제보자들이 있다. 유능한 이주민 설화 제보자는 다문화 전문 이야기꾼으로 활동할 수 있다.

136명의 제보자 가운데 10편 이상의 다수의 이주민 구술 담화 자료(속담 포함)를 구연한 제보자가 46명이나 된다. 태국, 베트남, 일본, 중국(한족·조선족),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등 국적별로 다수 확보 되어 있다.⁴⁸⁾ 이 중에서도

달레나 드 카를로 지음, 장한업 옮김, 앞의 책, 108-109쪽).

48) 태국의 와닛차진시리와닛(54편), 나우봉(10편), 베트남의 누구엔티미두이엔(12편), 쩌트배트(10편), 프영(16편), 팜티루엣(12편), 저우티탄웅(10편), 일본의 모우에히로코(21편), 코마즈미호(30편), 곤도사끼에(11편), 이데이유미(12편), 마츠자키료코(32편), 마츠다타마미(29편), 노마치유카(52편), 이케다마유미(15편), 중국의 장웨이(한족, 19편), 황샤오링(한족, 12편), 리칭후아(한족, 11편) 김설화(조선족, 43편), 주경화(조선족, 20편), 권경숙(조선족, 27편), 이화(조선족, 19편), 임향금(조선족, 11편), 캄보디아의 체아다비(15편), 김나이키(29편), 몽골의 수흐바타르알탄바가나(23편), 투스차르갈(15편), 노로브남(21편), 올찌마(18편), 바야르사이한(25편), 멀얼게렐(21편), 카자흐스탄의 우쿠자노바디나(15편), 악지라(14편), 조팔리나(13편), 키르기스스탄의 토레에바(14편), 타지키스탄의 무나바르(14편), 필리핀의 룯파네스(23편), 러시아의 안나 가르캅축(14편), 인도의 바수무쿨(21편), 파드마(30편), 네팔의 가리라주(16편), 스텔스탄졸티(28편), 대만의 사의진(18편), 미얀마의 쏘판따아

구연한 자료적 가치가 높고 구연 능력이 뛰어난 우수 대표 제보자만 34명이 된다. 태국의 와닛차진시리와닛 제보자는 2016년 춘천 실레마을 이야기 잔치 전국이야기시합에 출전하여 이주민 설화 구연 이야기관에서 구술했던 <참회의 도시락탑을 세운 아들> 설화를 구연하여 다문화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미 확보된 유능한 이주민 설화 제보자들은 구연능력이 뛰어나고 보유한 레퍼토리가 풍부하여 언제든지 다문화 전문 이야기꾼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구연한 설화 편수가 많다고 하여 다 유능한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능한 이야기꾼은 구연 편수가 적어도 자신만의 개성 있는 설화 구연 기법이나 구연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원형성이 살아 있고 구조가 탄탄한 설화를 구연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베트남의 저우티탄옹이나 캄보디아의 김나이키⁴⁹⁾ 제보자가 구연한 설화는 화소가 풍부하고, 구조가 탄탄하다. 그리고 대화체나 개성 있는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구연한다. 필자가 한국어 능력이 능숙하지 않는 두 제보자를 유능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조사자: 어릴 때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지요?] 예. 제가 이 이야기 들을 때, 옛날에 불이, 전기가 안 들어와요. 마당에다가 장작을 때갓고 이렇게 한 번 얘기하면은 동생하고 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불 때고 놀다가 안 그러면은 보름달 뜰 때 그럴 때, 전기가 들어온지 얼마 안됐어요. 제 동네에. [조사자: 마당에 누워서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저만 아니고 다른 애들, 그 동네 애들도 모이고, 할머니가 옛날에 저 집에서 대나무가 많이 끼우세요. 대나무를 얇게 얇게 찢라갓고 바구니도 만들고 뭐 깔판도 만들고, 이런 만들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좀 인기가 있는 집. [조사자: 할머니가 일하면서 애길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제가 심심해서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없어요. 땅을 갖고 이것저것 만들고 안

웅(13편), 아제르바이잔의 레일라(13편), 피루자(12편)이다.

49) 김나이키(캄보디아, 여, 1991년생, 결혼이주 6년차),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박현숙·김민수 조사(총 3회 조사에서 설화 29편 구연하였다.)

그러면 나뭇잎 뜯어서 만들어 할머니 일하는데 귀찮게 하고 놀아달라고 하고 할머니가 일해야 되니까 할머니가 옆에다가 일하면서 얘기 해주고. 제가 이야기 들으면 멍-하고 들어요. 다시 그렇게 하다가 애들 조용하게 시키다 보니까 일하면서 “할머니 거 얘기해 줄게. 이거 재밌는 얘기다.” 이렇게 간식 하나 주고 그렇게 일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얘기 해 줘요, 근데 제가 이 얘기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오늘 얘기 하고 며칠 있다가 또 돌려서 얘기 해 주고 제가 수십 번 들은 거 같아요. 이삼십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조사자: 그래서 기억이 잘 나는 거구나.) 네.⁵⁰⁾

위 인용문은 베트남의 저우티탄응 제보자가 이야기관에서 몇 편의 설화 구연을 마친 뒤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던 장면을 잠시 회상하는 부분이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마당에 자리를 깔아놓고 달이 밝은 날엔 달빛 아래에서, 날씨가 싸늘한 날엔 장작불 곁에서 할머니는 대자리를 짜면서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형적인 전통 이야기관을 재현해 놓은 듯이 이야기 구술문화적 특성이 그대로 녹아나 있다. 할머니 이야기를 ‘멍-하고’ 들었다는 제보자의 표현에서 어린 손녀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재미있게 듣고 자랐는지를 알 수 있다. 제보자의 말대로 이삼십 번이 아니고 수십 번 반복해서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 설화이다. 어릴 때부터 이야기 구술문화 속에서 자란 제보자는 할머니에게 수십 번 들은 베트남 설화를 즉흥적으로 기억하여 들려주는데도 서사가 원형성이 살아있고 화소가 풍부하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기억한 한 편의 이야기를 40분 동안 구연하기도 하였다. 캄보디아의 김나이키 제보자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담벼락에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 들려주거나 집으로 찾아온 아이들에게 이야기 들려주기를 즐겼던 경험이다. 설화 구연을 즐기는 김나이키 제보자의 경우에는 한 인물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결합시켜 한 편의 설화를 2시간 동안 구연하기

50) 저우티탄응(베트남, 여, 1985년생, 결혼이주 9년차),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박현숙 조사(2회 조사에서 설화 10편 구연)

도 하였다.

이들은 이야기의 재미를 알고 즐긴다. 재미있게 구연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고, 자신만의 구연 방법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야기 구술문화의 경험을 지닌 진짜 이야기꾼이다. 이들에게 유창한 한국어 구연 능력의 향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주민 구술 설화 이야기꾼은 잠재적 이야기꾼을 발굴하고 성장시켜낸다. 제보자가 구연 횟수가 잦아질수록 구연 능력과 서사 구성력이 향상되는 가운데 자신이 선호하는 이야기 유형의 레퍼토리를 확보해 나간다. 이런 제보자는 특수 유형의 전문이야기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제보자는 구연 횟수가 잦아질수록 자신이 좋아하는 구연 종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처음에는 모국의 이야기를 한국에 소개한다는 사명감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찾아와서 구연을 한다. 그러나 이야기꾼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선호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구연이 이루어진다. 모우에히로코 제보자는 총 3회⁵¹⁾ 구연하는 동안 1회차에 2편, 2회차에 7편, 3회차에 11편을 구연하였다. 그런데 모우에히로코 제보자가 구연한 설화의 유형을 보면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혀 잘린 참새>, <복숭아 동자 모모타로>, <원숭이와 계>, <주먹밥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신이담과 괴기담이 12편⁵²⁾, 소화(笑話)가 <이큐상의 피>, <방구쟁이 며느리> 2편이다. 모우에히로코 제보자는 설화 구연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신이담과 괴기담 위주로 구연하였다.

결혼이주민은 자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중층적으로 담지하고 있으며 언어적으로 자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언어적·문화적으로

51) 1회차 2016년 11월 11일, 2회차 2016년 11월 17일, 3회차 2016년 12월 17일 조사.

52) <하녀 키쿠의 원한>, <마스크 여인>, <학교 화장실>(미전사), <빨간 도깨비와 파란도깨비>, <가뭄에 비를 내려준 갖바> <힘이 약한 사람과 갖바의 거래> <저승강을 지키는 노부부>, <산속에 사는 거인 할머니 야만바>, <코가 길어지는 텐구의 부채>, <야만바와 부적 세 장>, <삿갓 쓴 돌부처 가사지소>, <귀없는 호이치>

특별한 능력자에 해당한다.⁵³⁾ 이들은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나 한국사회에 새로운 문화요소를 더하는 문화 중재자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 많은 이주민들이 자국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자국 역사적 사실과 설명적 정보만 제공한다. 그리고 전통음식 체험, 민속놀이나 춤을 보여준다. 이 모든 다문화 교육 활동에 현지 조사를 통해 채록한 이주민 구술 설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덧붙이고, 관련 의상이나 악기, 음식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하면 교육적 효과를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 활동에서 이주민이 알고 있는 한국설화와 자국의 설화를 비교하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이주민 제보자들은 정착하여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 문화를 익혀나간다.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관에서 동일 국적 제보자라 하더라도 조사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설화를 구연한다. 특히 이주생활담의 경우에는 도시와 시골, 농촌과 어촌, 강원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 이주민이 정착하고 거주한 지역에 따라 구술하는 내용이 한국인이 경험하는 지역적 차이만큼이나 천양지차(天壤之差)이다.

한국에서 처음 정착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이주민은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일궈온 삶의 터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⁵⁴⁾ 이주민에 대한 정주민의 시선은 그들을 지역, 마을의 주변인으로 규정짓지만 이주민은 그 지역민과 동일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지역, 마을 주인으로서의 애향심을 갖는다. 강릉에 정착하여 22년째 살고 있는 곤도사끼에 제보자는 강릉지역을 수호하는 마을신 <범일국사 탄생담>을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몇 년 전

53) 신동훈, 앞의 논문, 2017, 289쪽.

54)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지 올해로 23년차에 접어든 한 제보자는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자녀 2세로 한국인의 자손이면서 한국어는 할 줄 모르고,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한족의 교육을 받고 자란 자신이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조선족인가? 한족인가?’ 민족적 정체성 혼란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아버지가 중국에서 성공한 뒤에도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뿌리는 내린 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이주민이 되어 오랜 세월 강릉에서 살다보니까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하였다.

에 알게 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하였는데 설화의 주요 화소를 빠짐없이 구연하였다. 다른 지역민은 물론이고 강릉지역민도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는 마을신의 내력담이다. 이주민에게서는 채록하기 어려운 이주 지역의 특수 설화이기에 때문에 귀한 자료이기도 한다. 제보자가 <범일국사 탄생담>을 기억하는 이유는 자신이 새롭게 뿌리를 내린 지역의 문화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모국의 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곤도사끼에 제보자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때 지인의 부탁으로 자매결연 맺은 일본의 한 도시 사람들의 관광통역을 맡은 적이 있다. 일본 관광객에게 강릉단오제 관련 문화 정보를 주고 싶어서 스스로 자료를 찾아 <범일국사 탄생담>을 익혔다. 일본의 자매결연 도시도 부부신 모시는 마을 축제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문화적 유사성을 연계시켜 일본 관광객들에게 강릉단오제를 알린 것이다. 이주민은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이며,⁵⁵⁾ 이들의 이중문화의 이해와 공존은 상호문화를 잘 융합시켜내는 훌륭한 문화 중재자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주민 구술 설화는 소수의 번역물에만 의존해 오던 이주민 설화의 향유 방식의 틀을 바꾸어서 국내 최초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년간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설화 구술 조사 및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구술 조사를 통해 확보한 귀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는 제보자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서사전문가, 교육자, 스토리텔러, 문학치료사, 다문화 전문 연구자 등 특성화된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좋은 학습 교재가 된다.

55) 결혼이주여성들은 농촌 지역의 중요 무형문화 전승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옥희가 앞의 논문 289쪽에서 10여년 전(2018년 기준)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전승되는 남원삼동굿놀이 참여자 중 무동을 제외한 젊은 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이었다고 밝힌 바와 같이 농촌 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셋째, 이주민 구술 설화는 문화·교육적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개발의 ‘원천 스토리’로 활용될 수 있다.

설화가 오랜 세월 구전되어 온 원형적 문화유산이며, 한 개인이 경험한 삶 속에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주민 구술 설화 조사팀의 최종 목표인 이주민 구술 설화 DB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파급효과를 낳은 가능성이 높다. 현대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스토리텔링이고, 이주민 구술 설화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주민 구술 설화는 다문화에 관심 있는 공연기획자, 공연제작자, 게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동화 등 시나리오 개발자나 작가 등 누구나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천 스토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야기 구술문화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구술성이 사라진 설화에 인공호흡기가 되어 생명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현대의 문화콘텐츠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는 오늘날 설화 전승자 역할을 하며 설화 전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 [조사자: 네네, 재밌어요. 그런데 이거(열두 띠 이야기)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셨어요?] 네 애니메이션으로 봤어요. [조사자: 이것도 어릴 때 저녁 식사하시면서?] 네네 그거.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그 애니메이션? 토요일 저녁에 보는 걸로 그 당시에 드라마 같은 거 많이 없었잖아요. 있긴 있었는데 어른들이 보는 거니까.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옛 애기가 이거는 얼마나 봐도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들었어요. [조사자: 아 그래요?] 다른 애니메이션은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는데 [코마츠미호: 좋은 거는 보라고 해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거는 좋은 거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봐도 된다고. [코마츠미호: 근데 그거 내레이션을 좋고, 지금 들어도 좋아요.] 좀 포근한 느낌. [조사자: 그럼 시작할 때 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조사자: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조사자: 그럼 불러주세요.] (노래를 불러준다.) [조사자: 그럼 그 노래 나오면 텔레비전 보러 오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조사자: 그럼

몇 분 정도해요?] 15분, 15분 두 편. 내레이션을하고 그림도 예뻐요. [조사자: 아 워낙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림도 예쁘고] 네, 이 얘기도 좀 포근하게 엄마가 얘기해주는 것처럼 들을 수 있으니까.⁵⁶⁾

[B] 그래서 항상 욕심을 많이 가지면 안 좋은 일이 있고 욕심 없이 순수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런 교훈으로 유명하죠. [조사자: 그럼 요것(벚꽃 피우는 할아버지)도 애니메이션 보셨던 거 기억한 거죠?] 네네, 책에서도 나왔어요. 우리 집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늘 얘기해 주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다녔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책을 하거나 그림책이라든가 가미시바(紙芝居: 종이연극)이라고 해서 한 장씩 한 장씩 그림이 있고 그 거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 있어요. 옛날에 애니메이션 생기기 전에 인데, 그걸 한 장씩 그림으로 그렇게 떠넘기면서 얘기해주시는데 거기서도 자주 선생님이 그거 보여주셨어요.⁵⁷⁾

위 인용문은 곤도사끼에 제보자와 코마즈미호 제보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설화 전승 현장이다. 앞서 베트남의 저우티탄용 제보자가 전깃불 없는 달빛 아래에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던 설화 전승 현장과 사뭇 다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전승 현장은 일본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이다. 곤도사끼에 제보자와 코마즈미호 제보자가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린 시절에 접한 옛이야기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포근한 느낌을 주며, 매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접했던 재미있는 추억의 이야기다. 애니메이션이 발달되기 전에는 영상 이전의 매체인 종이를 이용한 연극 가미시바(紙芝居)를 통해서 옛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또, 조선족 김설화⁵⁸⁾ 제보자는 어릴 때 어머니가 사다준 전래동화 테이프를 즐겨 들었다고 하였다. 구연한 설화 중 상당부분이 전래동화 테이프를 듣고 알게 된 설화이다. 그리고 나머지 구연 설화를 접한 매체는 초등 교과서, 북한 애니메이션, 한국의 ‘배추

56) 곤도사끼에(일본, 여, 1966년생, 결혼이주 23년차) · 코마즈미호(일본, 여, 1969년생, 결혼이주 23년차)

57) 곤도사끼에(일본, 여, 1966년생, 결혼이주 23년차)

58) 김설화(중국 조선족, 여, 1983년생, 유학 10년차)

도사 무도사 옛날옛적에’ 애니메이션, 중국의 라디오 구연 프로그램 청취 등 다양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설화를 접한 김설화 제보자는 43편, 코마즈미호 제보자는 30편, 곤도사키에 제보자는 11편, 다수의 설화를 포함한 많은 양의 자료를 구연하였다. 한 제보자에게 이렇게 많은 양의 이주민 구술 설화를 채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술 설화의 원천 스토리를 다양한 매체로 재창조한 콘텐츠의 영향이 크다. 설화 전승의 그림책,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 전환과 활용은 일본 설화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장편 애니메이션 창작으로 이어졌고, 그 기반이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성공여부는 좋은 원천 스토리에 있다. 현지조사를 통해 채록한 이주민 구술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처럼 콘텐츠 개발의 좋은 원천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현재 다문화시대를 맞아 다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 이해와 활용에 목표를 둔 다음세대재단의 올리볼리 그림동화 사업팀에서 개발한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레바논 등 다국의 그림동화 애니메이션을 시작으로 다문화전문기업 아시아인허브에서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제작하고 있는 엄마나라 동화책 만들기 사업이 대표적이다.⁵⁹⁾ 엄마나라 동화여행은 스토리텔러 양성과정과 일러스트레이션 양성 과정을 거친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제작과정에 참여한다. 이런 점에서 엄마나라 동화여행은 기존의 외국 동화책 번역에만 치우친 다문화 동화 제작의 한계를 한 단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콘텐츠 제작의 가장 기본이

59) 아시아인허브에서 제작한 엄마나라 동화책에는 현재까지 40여편의 다문화 동화가 소개되어 있다. 태국의 <엄마참새> <썬뽀> <끄라이팅>, 말레이시아의 <메기이야기> <함수초이 이야기>, 베트남의 <닷쌈> <백 개 매듭 대나무> <세 자매> <용과 선녀의 후예> <반쯤반 짜이> <구장의 전설>, 필리핀의 <두리안 전설>, 중국의 <영리한 아판티> <엄마 찾는 올챙이들>, 일본의 <데굴데굴 주먹밥>, 캄보디아의 <띠우왓타이 스카프의 비밀> <프놈 펜도시이 이야기> <늦 소녀의 지혜> <신성한 코를 가진 소년>, 몽골 <지혜로운 할아버지와 사자> <절뚝거리는 까치> <엄지 명궁수> <고니의 동화> 등이다.

되는 원천 스토리 활용에 문제점은 여전히 안고 있어서 변화가 요구된다.

과거 한국 전래동화 재화의 문제점 중 하나는 특정 서사의 고착화 현상이었다. 원형이 살아 있고 무한한 생산성을 지닌 원전 설화를 원천 스토리로 삼지 않고 이름난 작가가 개작해 놓은 자료를 원전으로 삼아서 재화가 이루어진 관행으로 발생한 문제였다. 다문화 옛이야기 관련 출판물에서는 해외 출판물 번역을 통해 재화 함으로써 특정 서사의 고착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설화의 본령은 마음에 기억하여 말로 구술하는 데 있는 바, 그 속에서 자료의 구조와 의미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동화작가들은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집>이나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같은 현지조사를 통한 설화 채록집에서 재미있는 원천 스토리를 찾고 그 위에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독창적인 다양한 작품을 창작해 내고 있다. 다문화 콘텐츠 역시 설화의 본령을 살린 자료들을 원천 스토리로 삼고 다양한 매체 전환을 통한 창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설화를 비롯한 민요, 무가를 채록해 놓은 한국 구비문학의 보고(寶庫),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조사 사업을 시작한지 40여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채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민 설화를 포함한 여러 구술 담화 자료 역시 <한국구비문학대계> 못지않게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채록한 이주민 구술 설화와 구연 상황을 검토하여 자료가 지닌 문학적 가치를 발견하였다.

민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각국의 설화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자의 다른 문화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온다. 또, 이주민 구술 설화는 현지조사에 참여한 이주민이 모국설화 구술

과정에서 억눌려왔던 문화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중문화를 융합하는 정체성을 확장시켜 나가게 한다. 또한 인류 보편성을 띤 이주민 구술 설화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구성원 간의 상호문화의 이해와 공감력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이주민 설화 구연 현장은 다양한 설화 각편 생성, 협력구연을 통해 완결성 있고 서사성이 풍부한 설화를 생산해 내는 구술문화의 속성과 가치를 발현시킨다.

이주민 구술 설화는 다양한 학문, 예술, 교육 분야에서 무한 활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문적 차원, 인적 차원, 문화적·교육적 차원의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문적 차원에서는 문학치료학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학문적 기반이 되는 문학치료학에서도 다문화사회에 다양해진 한국사회 구성원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민 구술 설화는 문학치료학의 작품서사와 문학치료 대상의 확장에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적차원에서는 이주민 구술 설화를 구연한 우수한 제보자나 조사에 참여한 인력들을 다문화 전문 이야기꾼이나 다문화 전문 인력으로 성장시켜 낼 수 있다. 또한 이주민 구술 설화 자료는 다양한 다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유용한 학습 교재가 될 수 있다.

문화적·교육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원천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이주민 구술 설화 가치 증대와 활용성 확장을 위해 향후 몇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 원형이 살아 있고, 탄탄한 구조에 다양한 화소를 지닌 질적 수준이 높은 설화를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 현재 조사 정리된 자료는 재검토 과정을 거쳐 옥석을 가려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과 함께 지금까지 조사되지 못한 다양한 국가의 구술 설화와 다민족국가 내 여러

민족의 구술 설화까지 국가별, 민족별 구술 설화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유능한 제보자의 구연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추후 지역별 우수 제보자로 구성된 다양한 이야기관의 구성을 통해 참여 이야기꾼들이 상호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역동적인 이야기관을 형성하여 좋은 자료를 구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좋은 생애담 자료 확보를 위한 제보자 발굴도 필요하다. 여성 생애담의 문학적 가치는 이미 증명된 바, 이주민의 단순한 문화적 차이, 언어 실수 등 단편적 에피소드의 모음을 넘어서 민족적, 이주 지역적, 직업적, 생활 환경적 특성을 아우르고, 인생 전반에 걸친 질곡한 삶의 역사를 담은 무게감 있는 생애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결혼 이주 경력 20년이 넘은 제보자들은 한국에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풍부한 삶의 경험과 발자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애담 조사에 있어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시어머니의 대를 이어 해녀 일을 하는 이주민 며느리, 한국 무형 문화를 계승하는 이주민 여성 등 특별한 사연을 지닌 이주 여성의 생애담도 의미가 있다. 좋은 생애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권미경, 『여성결혼이민과 한국사회 다문화주의와 평생교육』, 한국학술정보, 2009.
- 김성길, 「다문화 개념 재정립과 소통의 배움 원리」, 『Andragogy Today』 16-1, 한국성인교육학회, 2013, 1-20쪽.
- 마달레나 드 카를로, 『개념과 활용 상호문화 이해하기』, 장한업 옮김, 한울, 2011.
- 박현숙, 「‘콩쥐팍쥐’ 옛이야기 그림책 건주기」, 『열린어린이』, 2015년 2월호.
- 박희영, 「일본 요괴 문화 속 여성 요괴의 생성과 이중성의 구조」, 『일본근대학 연구』 42,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285-300쪽.
- 신동훈, 「문학치료에서 외국설화의 활용 가능성 탐색」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9-46쪽.
- 신동훈,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281-323쪽.
- 신동훈, 「문학치료를 위한 자기서사 종합 진단도구 개발 연구」, 한국문학치료학회 제 173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8. 3. 31.
- 오정미, 「설화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오정미,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한국구비문학회, 2017, 187-211쪽.
- 이옥희, 「이주민이 경험하는 민속문화 소통의 현주소」, 『남도민속연구』 23-10, 남도민속학회, 2011, 269-295쪽.
- 정운채, 「문학치료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쪽.
-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131-147쪽.

* 이 논문은 2018년 5월 20일 투고되어 6월 14일 심사 완료하고 6월 16일 게재 확정함.

<Abstract>

Cultural Values and Utilization Plan for the Oral Tales of Immigrants who Moved to Korea

-Focusing on field research data targeted at immigrants

Park, Hyeon Suk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cultural values of the oral tales recorded from immigrants who moved to Korea through the field research and to seek its modern utilization plan.

Cultural values of immigrants' oral tales are as follows.

First, oral tales of immigrants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ethnicities bring about a change of perception that understands cultural diversity and accepts other cultural identity of others.

Second, the immigrants recover their cultural identities, which were suppressed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culture through the verbal statement of their homeland's folk tales, and expand the identity fusing the dual cultures.

Third, the oral tales of immigrants with human universality extend understanding and empathy for mutual culture among members with different cultural identities.

Fourth, the oral tales of immigrants manifest its attributes and values of oral culture such as various and different version of folk tales creation and cooperative storytelling.

The oral tales of immigrants with the above mentioned cultural values have the potentials of infinite utilization in various academic, artistic and

educational fields. This paper suggests ways to utilize them focusing on three aspects.

First, in literary therapy, it is possible to make meaningful use of the oral tales of immigrants to expand the narrative area of the work and the objects of literary therapy.

Second, in the human dimension, it can train multicultural professionals using the oral tales.

Third, it can provide an important 'source story' for developing various cultural contents on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level.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qualitative level of oral tales data, establishment of quantitative data, and strengthening data of good life stories in order to increase the value and utilization of immigrants oral tales in the future.

Key words: immigrants, multiple culture, immigrants oral tales, cultural identity, culture creator, cultural empathy power